



한정된 급여로 생활하는 근로 소득자 가정의 고민은 생활비를 쓰고 나면 투자할 돈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무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별로 낭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자녀를 교육비와 보험료 내고나면 생활하기도 빠듯한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물론 소득을 늘리지 않으면 고정투자를 하기 어려운 가정도 많지만, 상당수가 매년 발생하는 비정기 수입을 잘 관리할 경우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비정기 수입은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제외한 수입으로 부업과 관련한 수입과 부업과 관련없이 상여의 개념으로 들어오는 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비정기 수입의 경우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공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불필요

## CMA 적립...비정기 지출 때 활용하라

**50%는 가정위해, 50%는 미래위한 투자 바람직  
'공돈' 아닌 '땀의 대가' 인식...자산으로 만들어야**

한 지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비정기 수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정기 수입도 역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중한 돈이므로 소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비정기 수입이 들어올 경우 50%는 우리 가정을 위해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50%는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매월 발생하는 정기 지출은 급여에서 해결하고, 비정기 지출은 비정

기 소득을 활용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즉 비정기 소득을 긴급예비자금계좌인 CMA에 적립해놓고 비정기 지출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활용한다면 월 고정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경조사비나 자동차 보험료, 세금 등과 같은 비정기 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월 고정 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비정기 수입을 통해 긴급예비자금을 확보해 놓았다면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필자가 재무상담을 진행했던 한 경찰공무원의 사례를 보면 비정기 수입 관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의 고민은 급여를 가지고는 고정적인 투자를 할 만한 여력은 안되지만 미래에 발생할 이벤트를 위해 준비해놓은 자산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1월과 9월에 발생하는 명절 휴가비, 12월에 나오는 연 가보상비, 2월에 나오는 성과상여금 및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 환급금 등이었고, 이러한 비정기 수입을 합하면 연

600만원에 달했다. 즉, 본인의 의지에 따라 연 600만원을 미래의 재무계획을 위해 투자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비정기 수입은 들어오는대로 여행이나 가정용 전자기기 교체 등과 같은 비정기 지출로 없어졌던 것이다. 결국 이 경찰공무원은 과다했던 보장성 보험을 조정하여 매월 30만원을 주택확장자금 융도로 적립하고, 비정기 수입 중 50%인 연 300만원을 자녀 교육자금으로의 임의식 펀드를 개설하고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고정투자가 전혀 없던 가정이 조그마한 생각의 변화로 연 650만원을 적립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주택을 확장하고, 자녀 대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변화된 것이다. <TNV 어드바이저 FP팀장>

## “고유가 감당 어렵다 유류세 인하해 주오”

### 대한상의 대책 호소

대부분의 기업이 현재의 유가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다고 여기고 있으며 유류세 인하 등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전국 514명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가 상승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조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들의 82.5%가 현재의 유가 수준(두바이유 기준)인 배럴당 90달러는 감내하기 어렵다는 응답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감내할 수 있는 유가 한계치가 배럴당 '70달러 이하'라고 응답한 기업은 24.2%, '71~80달러'는 24.8%, '81~90달러'는 33.5%를 각각 차지했으며 '91~100달러'에도 견딜 수 있다는 기업은 15.2%에 불과했다.

고유가 대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기업이 79.3%로 절대다수

였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41.1%)보다는 중소기업(88.9%) 가운데 대책이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대책을 시행중인 기업들이 밝힌 고유가 대처방법(복수응답)으로는 '에너지 절약 활동 강화'(57.1%)가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제품단가 조정'(31.4%)과 '원자재 구매시점 조정'(25.7%), '에너지 비효율 설비 교체'(21.9%), '아웃소싱 확대'(12.4%) 등 순이었다.

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의 대응책(복수응답)으로는 '투자축소'와 '인건비 절감'을 든 업체가 각각 25.9%로 가장 많아 고유가가 성장동력 훼손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넣었다.

고유가에 대비한 정부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유류세 인하'(72.3%)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았고 '원자재 수입관세 인하'(50.3%)와 '법인세·부가세 등 간접적인 세제혜택'(29.6%)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식품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한국업체들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 춤추는 유가...내년 경제전망 '진땀'

### 한은·민간경제연구소

내년 경제성장률과 물가, 경상수지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전망을 수립 중인 한국은행이 최근 춤추는 국제유가 때문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15일 한국은행과 민간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당초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대 후반을 나타내고 내년은 5%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국제유가를 비롯한 주요 가격변수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내년 경제전망의 시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형국이다.

이상태 한은 총재가 지난달 말 국회 재

경위 국정감사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5% 근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이 달 들어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듯한 기세를 보이면서 내년 5% 성장률은 어림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급부상하기도 했다. 다행히 이달 중순 들어 유가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듯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춤출지 장담하기 어렵다.

한은은 12월 4, 5일께 내년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 경제전망의 기본 전제인 유가와 환율, 세계 경제성장률 등의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어 이 총재가 언급한 '5% 근처'의 성장을 전망을 제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연합뉴스

## “고작 8명이 채권 150조 운용하나”

### KDI, 국민연금 문제 지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투자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국내채권 운용인력이 8명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KDI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진 국가 자산운용체 구축방안'이라는 용역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KDI는 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는 국

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시설 등에 대한 응자사업을 시행했는데, 대여 이자율이 작년에 3.6%에 불과했다"면서 "이는 다른부문 투자수익률에 비해 매우 낮아 기금운용상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아울러 전문 자산운용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채권운용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150조원에 이르는데, 운용인력은 8명에 불과해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한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아이에스인프라	경리/사무직 여직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1/17	062-961-9321
미래에셋생명	본사/광주 고객지원센터 업무관리원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11/19	062-370-6800
DW&직영판매㈜	대우자동차판매 - 광주 TDC센터 여 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1/20	010-7508-3030
광주교육문화	창고재고물출고관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0	062-373-7200
㈜HRN	[광주역앞-150만] SK월레姆 114상담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1/21	062-529-2671
한국처럼공업㈜	설계담당 및 생산기술담당	대졸/경력6년	3600~3800	11/22	062-958-3316
유니스전자㈜	전자부품조립 생산직 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3	062-955-1532
㈜코엔텍	토목설계및도시계획분야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5	062-525-4661
우연테크	경리, 회계 시무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8	062-384-1420
동국건설㈜	일찰업무의 경력사원	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11/30	062-606-6522
김은영코스매틱	피부관리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30	010-4645-8184
㈜한국정보 전대점	매장판매/고객상담/개통업무/개통센타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30	062-527-5400
다원여행사	여행업무 & 홈페이지 관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30	062-265-7000
㈜씨큐어넷	보안서비스 요원(삼성풀플러스 계립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30	02-2166-3437

(광주집코리아 512-6210 제공)

## 카드사 가맹점수수료 속속 인하

신용카드사들이 금융감독국이 제시한 가맹점수수료 원가산표준에 따라 수수료 인하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최대 카드사인 신한카드는 15일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기준 최고 4.5%에서 2.2%로 일괄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가맹점 수수료율이 4.05%였던 이발소·미장원, 4.50%였던 영세 기업종의 경우 수수료 인하율이 46~51%에 달하게 된다.

이번 수수료 인하 대상은 세법상 간이과세자로 약 4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보게 된다.

신한카드는 160만개 일반가맹점에 대해선 이달말, 체크카드 가맹점에 대해선 12월 중에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삼성카드도 이날부터 영세가맹점의 최고 수수료율을 4.5%에서 2.2%로, 일반가맹점도 업종 최고 수수료율을 4.5%에서 3.5%로 낮췄다.

현재 수수료율이 2.7~3.5%인 가맹점은 0.05%포인트씩 인하했다. 삼성카드는 12월 중에 체크카드 수수료도 낮출 계획이다. 현재 외환은행과 신한카드·삼성카드가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했으며 다른 카드사들은 이달 중 수수료를 낮출 예정이다. /연합뉴스

“일 빨리 빨리 안하면 불안”

직장인 78% “조급증 앓고 있다”

대다수 직장인들은 매사에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조급증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병원치료가 필요하고 느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잡코리아가 직장인 지식포털 비즈문과 함께 직장인 1천42명을 대상으로 조급증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78.2%가 '내가 조급증을 앓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복수응답) 직장인들은 대개 '모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55.1%),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일이 생거나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46.0%)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 22%는 이러한 조급증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아주 많다'(7.6%) 혹은 '많이'(14.4%) 느낀다고 답했다.

조급증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때 스트레스를 낼보다 더 많이 받는다'(41.1%)거나 '모든 일을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에 업무처리에 실수가 잦다'(28.8%)는 답이 많았다. /연합뉴스

## 주가 10% 오르면 가계소비 0.3% 증가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가 10% 상승하면 가계소비가 0.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한국은행은 '가계소비의 자산효과·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계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와 자산보유액 등을 기초로 주가변동이 전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본 결과 주가가 10% 오르면 전체 가계소비가 0.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가계의 주식자산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은 0.05, 주택자산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은 0.02로 나타났다.

이는 주식자산의 가치가 1천원 증가할 경우 가계소비가 50원 늘어나고 주택자산의 가치가 1천원 증가하면 가계소비가 20원 증가할 수 의미한다.

주택가격 변동이 소득계층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2000년 이전에는 중간소득 이상 계층에서 눈에 띠는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2000년 이후의 통계를 포함한 전기간을 대상으로 하면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2001년 이후 가계부채 급증을 동반한 주택가격 상승이 오히려 가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연합뉴스

## 대한항공 스카이팀 中남방항공 영입

### 조양호회장 세계 항공업계 큰손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이 중국 최대 항공사인 중국남방항공의 스카이팀 가입 대표 자격으로 서명을 했다. 스카이팀은 조양호 회장이 세계 항공업계에서 맷은 탄탄한 인맥을 바탕으로 만든 항공동맹체다.

조 회장은 1990년대 말 스타얼리언스와 원월드라는 항공동맹체가 탄생하자 당시 제휴 관계인 멀티항공의 회장에게 동맹체 결성에 제의한 뒤 에어 프랑스의 최고경영자도 설득해 2000